

경제동향

- **요 약**
- **생 산** 제조업지수/재고지수
- **소 비** 대형소매점 판매액
- **고 용** 경제활동인구/취업자/실업률·고용률
- **물 가** 소비자물가/신선식품
곽지원 연구원(서울연구원 서울경제분석센터)
- **부 동 산** 주택매매가격/주택전세가격
- **금 용** 가계대출/개인파산/신용보증재단
- **수 출 입** 수출입액/수출입 품목/국가별 품목
이소은 연구원(서울연구원 서울경제분석센터)

| 요약 | 5월 서울의 경제동향

생
산

- 서울의 5월 제조업생산지수는 89.9로 전년동월대비 4.6% 감소
- 5월 제조업 출하·재고 지수는 각각 전년동월대비 0.7%, 9.8% 각각 증가하여 경기확장기

소
비

- 서울의 5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2조2,359억원으로 전국(6조6,078억원)의 33.8%를 차지
- 5월 백화점과 대형마트 판매액은 전년동월대비 3.5%, 14.4% 각각 증가

고
용

- 서울의 5월 취업자는 513만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만명(0.4%)이 증가
- 서울의 5월 고용률은 60.3%로 전년동월대비 0.4%p 증가, 실업률은 4.8%로 전년동월대비 0.5%p 증가

물
가

- 2014년 5월 서울시 소비자물가지수는 109.7(2010년=100.0)로 전년동월대비 1.9% 상승

부
동
산

- 서울의 5월 주택매매가격은 강북지역(-0.02%) 특히 용산구(-0.23%)와 강북구(-0.13%)를 중심으로 전월대비 0.01% 하락
- 서울의 5월 주택전세가격은 강북지역(0.17%) 특히 강북구(0.62%)와 구로구(0.31%)를 중심으로 전월대비 0.15% 상승

금
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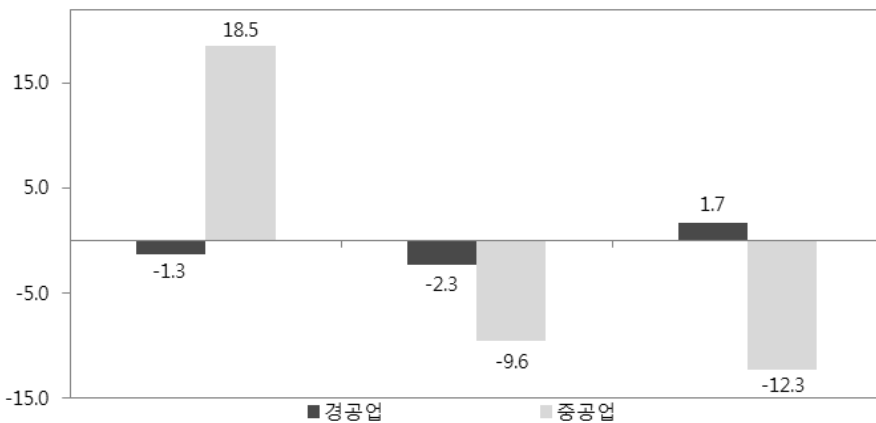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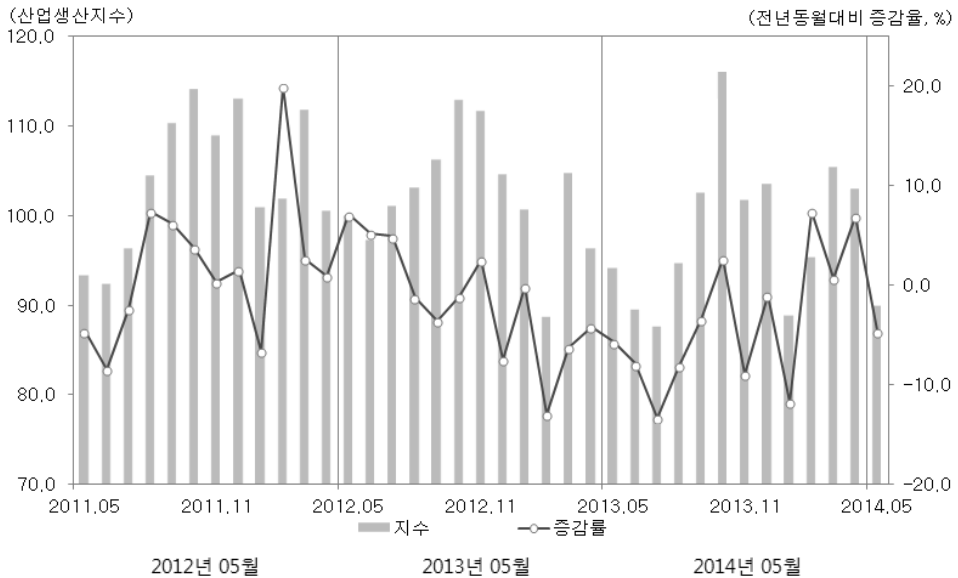
- 서울의 5월 전체 대출금 잔액은 580조 7,137억 원으로 전월대비 0.3% 증가, 그 중 가계대출은 179조 6,320억 원으로 전월대비 0.2% 증가
- 서울의 5월 신설법인수는 2,103개로 전월대비 13.0% 감소
- 서울의 5월 보증지원 건당 평균지원금액은 전월대비 1.7% 감소

수
출
입

- 서울의 5월 수출은 54.2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동월대비 0.7% 증가, 품목별로는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, 국가별로는 중국이 1순위 차지
- 서울의 5월 수입은 113.2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동월대비 13.0% 증가, 품목별로는 석유제품, 국가별로는 중국이 1순위 차지

| 생 · 산 |

- 서울의 2014년 5월 제조업생산지수 89.9(2010=100)로 전년동월대비 4.6% 감소
 - 공업구조별로 중공업 부문 전년동월대비 12.3% 감소, 경공업 부문 1.7% 증가
 - 제조업 부문별로 전년동월대비 전기장비(44.7%), 섬유제품(6.9%), 의복 및 모피(0.8%) 등 증가, 의료정밀광학(-22.4%), 기계장비(-18.1%), 전자부품·컴퓨터·영상음향통신(-17.9%) 등 각각 감소



자료: 통계청, 경인지방통계청(2010=100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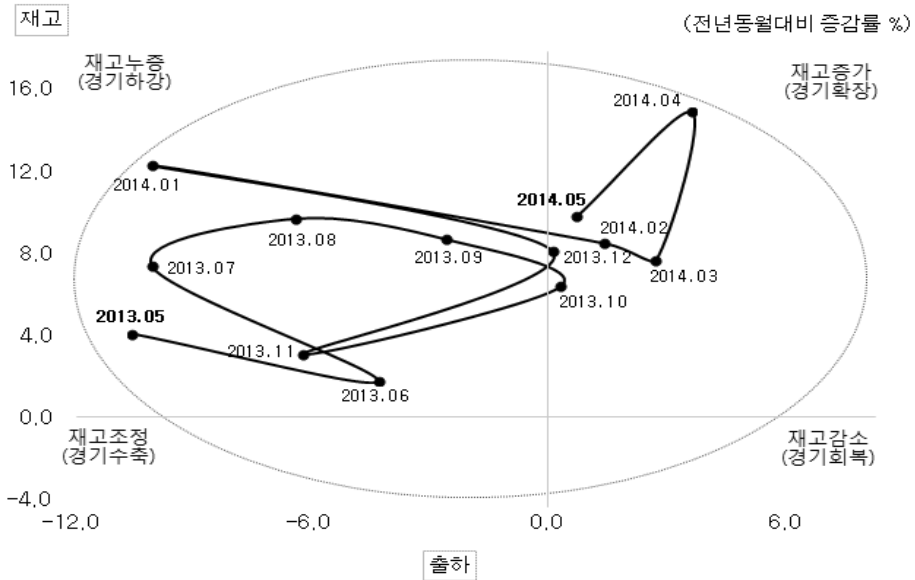
<그림> 산업생산 추이 및 증감률

| 출하 · 재고 순환 |

- 서울의 5월 제조업 전년동월대비 출하, 재고 증가로 경기확장기
 - 서울의 5월 출하지수는 91.8(2010=100.0)로 전년동월대비 0.7% 증가
 - 서울의 5월 재고지수는 117.3(2010=100.0)으로 전년동월대비 9.8% 증가
 - 출하, 재고 상승하여 경기확장 단계로 해석할 수 있음(<Box> 참조)

<참고> 출하·재고 순환 상관표

경기수축기	경기회복기	경기확장기	경기하강기
출하↓	출하↑	출하↑	출하↓
재고↓	재고↓	재고↑	재고↑
재고조정	재고감소	의도된 재고증가	재고누증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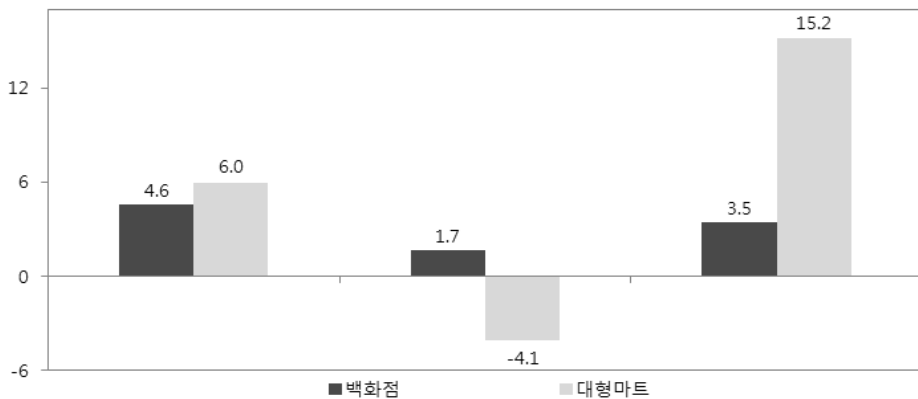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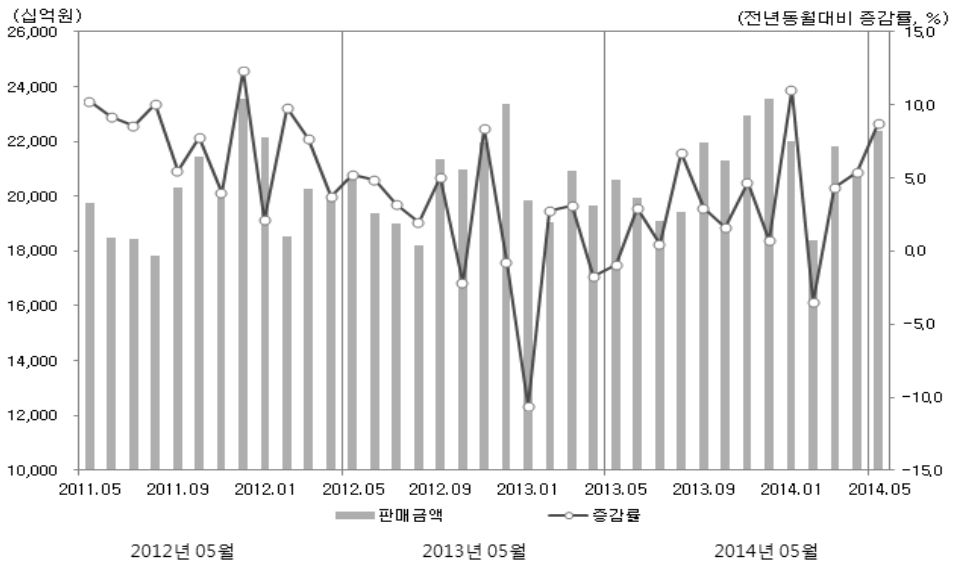
자료: 통계청, 경인지방통계청(2010=100)

<그림> 서울의 출하·재고 증감률 추이

| 소 · 비 |

■ 서울의 5월 대형소매점 판매액 전년동월대비 8.7% 증가

- 서울의 5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2조2,359억원으로 전국(6조6,078억원)의 33.8%를 차지
- 백화점 판매액은 1조1,956억원으로 전국(2조5,916억원)의 46.1%, 대형마트 판매액은 1조404억원으로 전국(4조163억원)의 25.9%를 차지
- 서울의 5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111.0으로 전년동월대비 5.7%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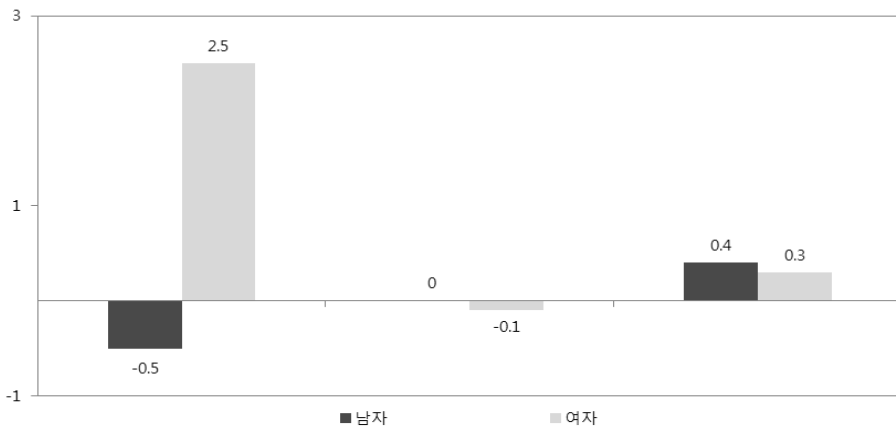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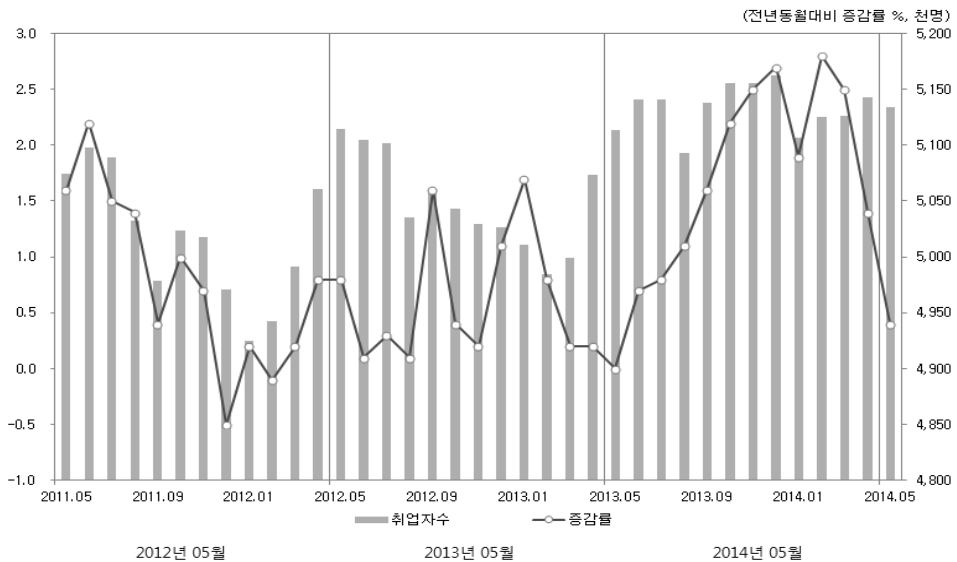


자료: 통계청, 경인지방통계청

〈그림〉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 추이 및 증감률

| 취·업·자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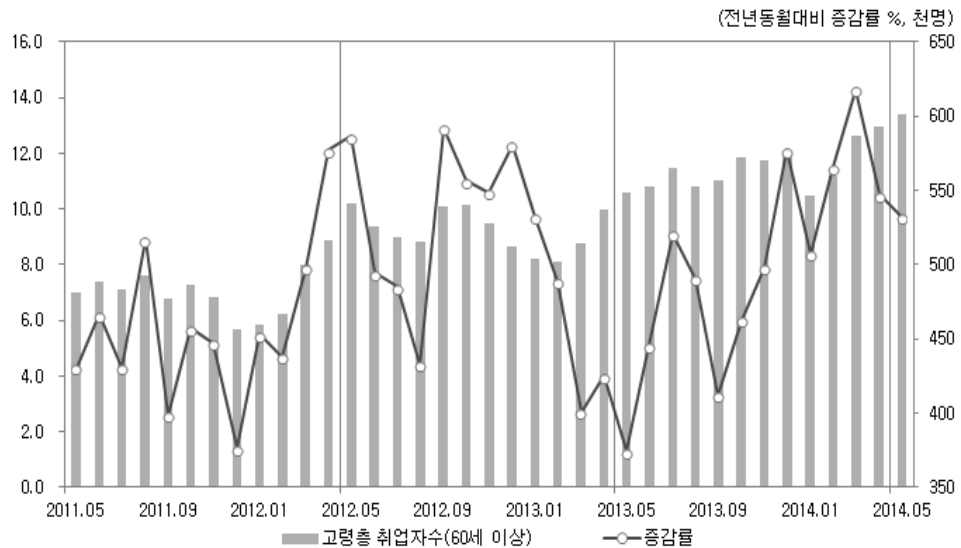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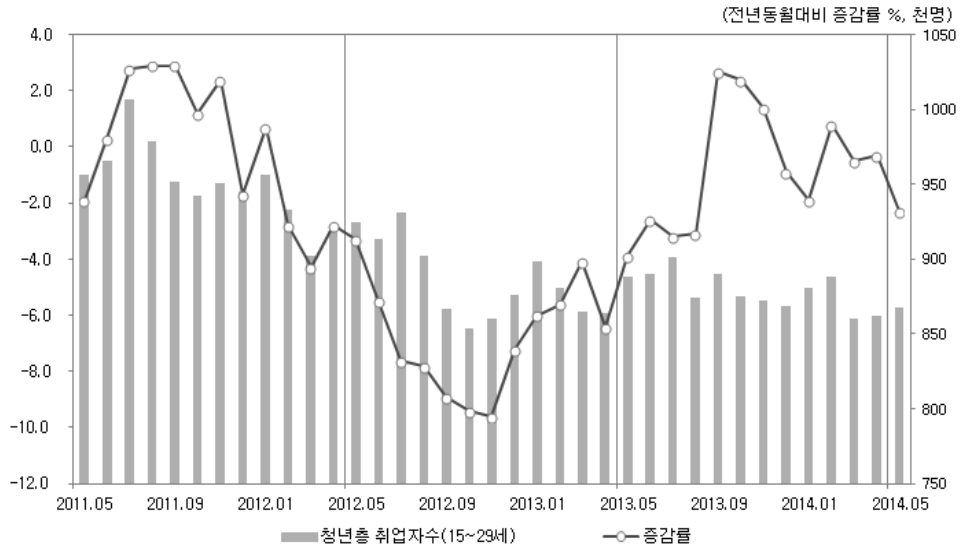
- 서울의 5월 취업자 수 전년동월대비 0.4% 증가
 - 서울의 5월 취업자는 513만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만명(0.4%)이 증가
 - 성별로 보면, 남자는 287만명, 여자는 226만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남자는 1만3천명(0.4%), 여자는 7천명(0.3%) 각각 증가
 - 산업별로 보면, 도소매·숙박·음식업 8만3천명(6.3%), 제조업 3만7천명(8.2%)이 각각 증가



자료: 통계청, 경인지방통계청

〈그림〉 서울의 월별 취업자 추이 및 증감률

- 서울의 5월 청년층(15세~29세) 증감률은 마이너스, 고령층(60세 이상)은 플러스 증가세
 - 서울의 5월 청년층(15세~29세) 취업자는 86만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.3% 감소
 - 서울의 5월 고령층(60세 이상) 취업자는 60만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9.7%로 꾸준한 플러스 성장
 - 청년층의 취업 증감률은 3개월 연속 감소세로 고령층과 대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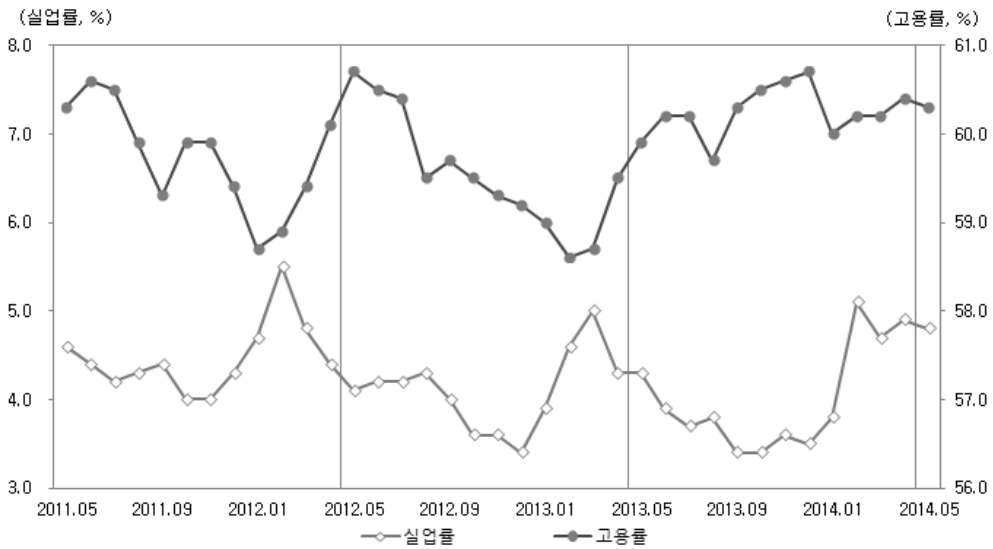
자료: 통계청, 경인지방통계청

<그림> 서울의 월별 청년층 및 고령층 취업자 추이

| 고 · 용 · 률 · 및 · 실 · 업 · 률 |

- 서울의 5월 고용률 전년동월대비 증가, 전국대비 낮은 수준
 - 서울의 5월 고용률은 60.3%로 전년동월대비 0.4%p 증가
 - 성별로 보면, 남자는 70.3%로 전년동월대비 0.6%p, 여자는 51.1%로 0.2%p 각각 증가
 - 2014년 5월 서울시 고용률은 전국(60.8%)보다 0.5%p 낮은 수준

- 서울의 5월 실업률 전년동월대비 동일, 전국대비 높은 수준
 - 서울의 5월 실업자는 25만9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만명(13.0%)이 증가
 - 실업률은 4.8%로 전년동월대비 0.5%p 상승
 - 성별로 보면, 남자는 4.4%로 전년동월대비 보합, 여자는 5.3%로 1.1%p 상승
 - 2014년 5월 서울시 실업률은 전국(3.6%)에 비하여 1.2%p 높은 수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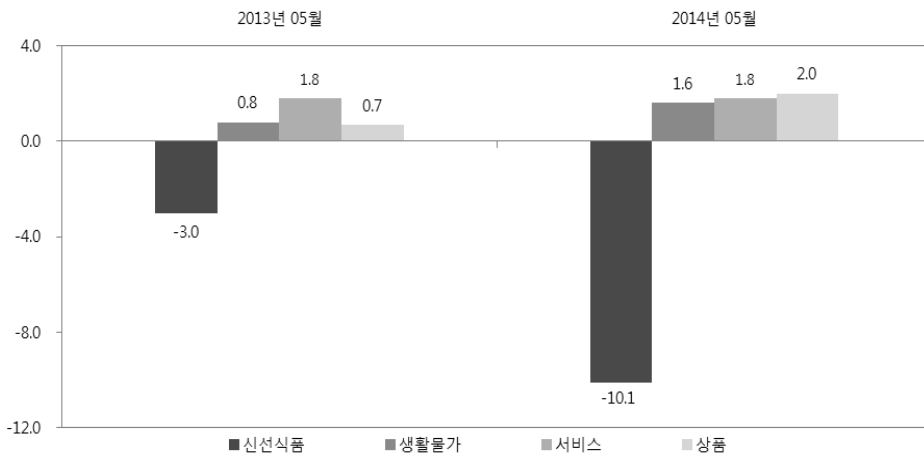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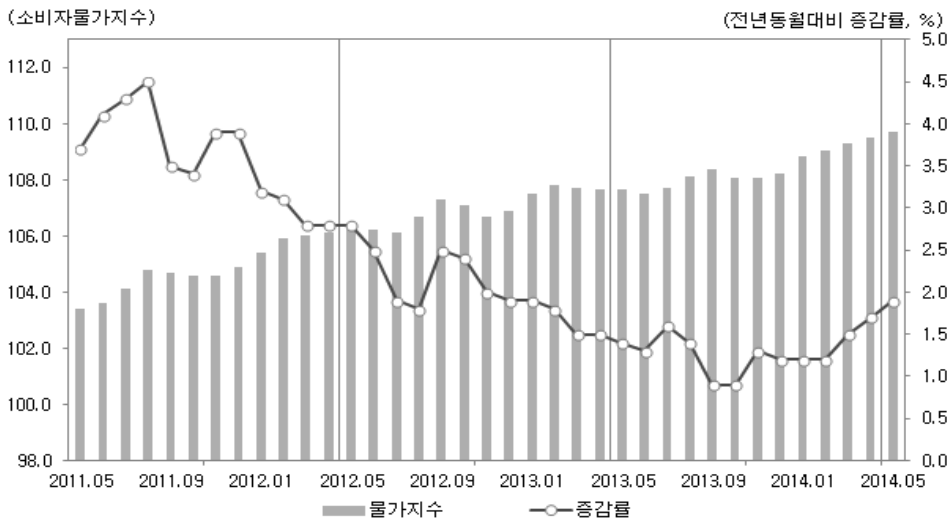


자료: 통계청, 경인지방통계청

<그림> 서울 실업률, 고용률 추이

| 물 · 가 |

- 서울의 5월 소비자물가지수 전년동월대비 1.9% 상승
 - 2014년 5월 서울시 소비자물가지수는 109.7(2010년=100.0)로 전년동월대비 1.9% 상승
 - 전년동월대비 주요 등락 부문을 보면, 주류 및 담배(-0.4%)를 제외한 나머지 부문 상승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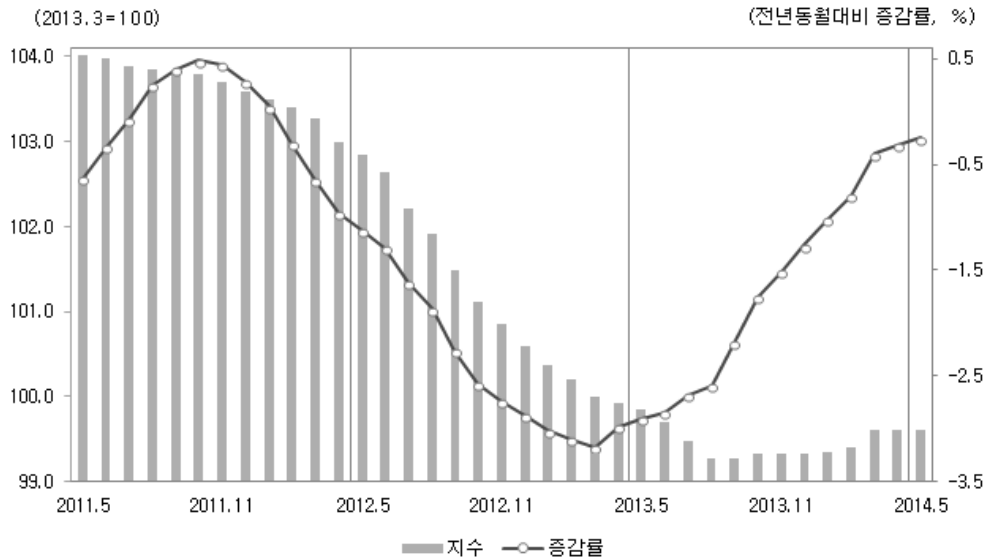
자료: 통계청, 경인지방통계청(2010=100)

<그림> 서울의 소비자물가 추이 및 동향

| 주 · 택 · 매 · 매 · 가 · 격 |

- 서울의 5월 주택매매가격 전월대비 0.01% 감소
 - 강남지역 전월대비 보합, 강북지역(0.02%) 전월대비 하락
 - 주요 하락지역: 용산구(-0.23%), 강북구(-0.13%), 강서구(-0.07%), 양천구(-0.04%)
 - 아파트(-0.03%), 연립주택(-0.01%), 단독주택(0.08%)

- 전국의 5월 주택매매가격 전월대비 0.07% 상승
 - 광역시(0.15%), 기타지방(0.11%), 수도권(0.01%) 모두 전월대비 상승



자료 : 국민은행연구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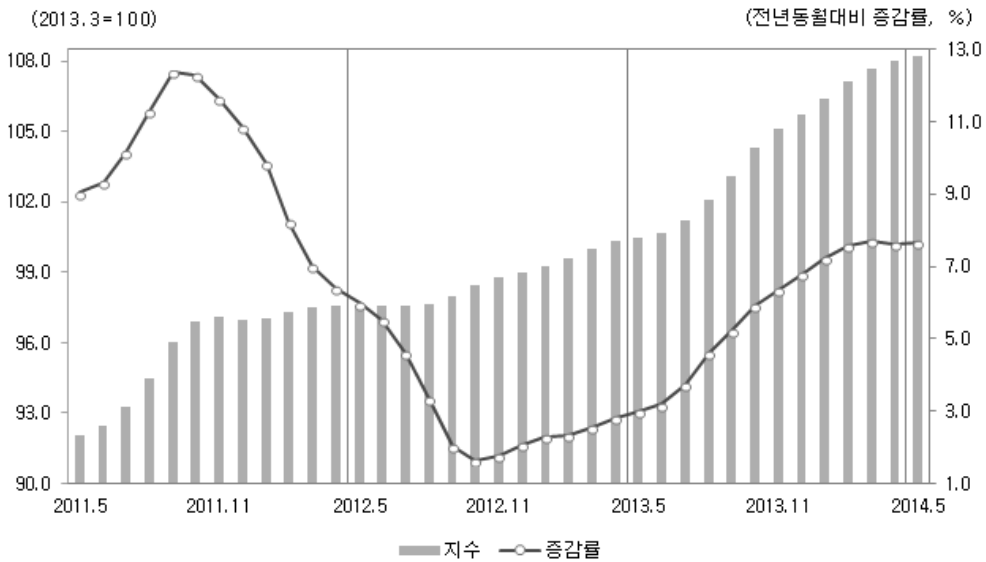
〈그림〉 서울 주택 매매가격 종합지수 및 증감률 추이

- 서울의 5월 아파트 평당 매매가격 전월대비 감소, 매매거래건수 전월대비 감소
 - 평당 매매가격(1,631만원)은 전월(1,632만원)대비 0.05% 감소
 - 매매거래건수(6,068건)는 전월(8,538건) 대비 28.9% 감소

| 주 · 택 · 전 · 세 · 가 · 격 |

- 서울의 5월 주택전세가격 전월대비 0.15% 상승
 - 강북지역(0.17%), 강남지역(0.12%) 모두 전월대비 상승
 - 상승률 상위지역: 강북구(0.62%), 구로구(0.31%), 송파구(0.30%), 동대문구(0.23%)
 - 연립주택(0.26%), 단독주택(0.16%), 아파트(0.09%) 등 상승세 지속

- 전국의 5월 주택전세가격 전월대비 0.14% 상승
 - 광역시(0.16%), 수도권(0.15%), 기타지방(0.10%) 모두 전월대비 상승



자료 : 국민은행연구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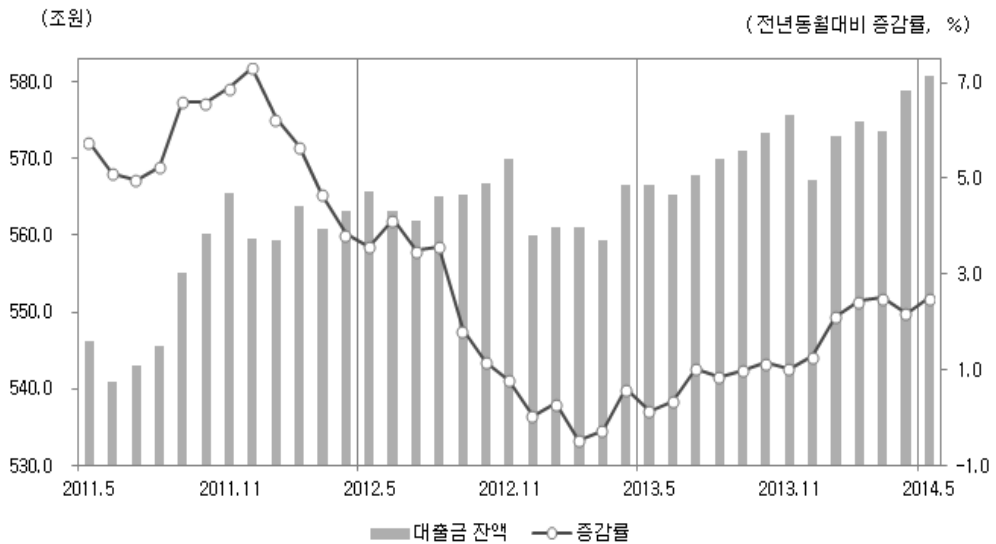
<그림> 서울 주택 전세가격 종합지수 및 증감률 추이

- 서울의 5월 아파트 평당 전세가격 전월대비 증가, 전세거래건수 전월대비 감소
 - 평당 전세가격(1,010만원)은 전월(1,007만원)대비 0.3% 증가
 - 전세거래건수(9,273건)는 전월(9,571건) 대비 3.1% 감소

| 가 · 계 · 대 · 출 |

- 5월 기준 서울의 전체 대출금 잔액은 전월대비 증가
 - 전체 대출금 잔액(580조 7,137억원)은 전월(578조 8,654억원)대비 0.3% 증가
 - 그 중 예금은행(476조 9,735억원)과 비예금은행(103조 7,402억원)은 전년동월대비 각각 4.6% 증가, 6.2% 감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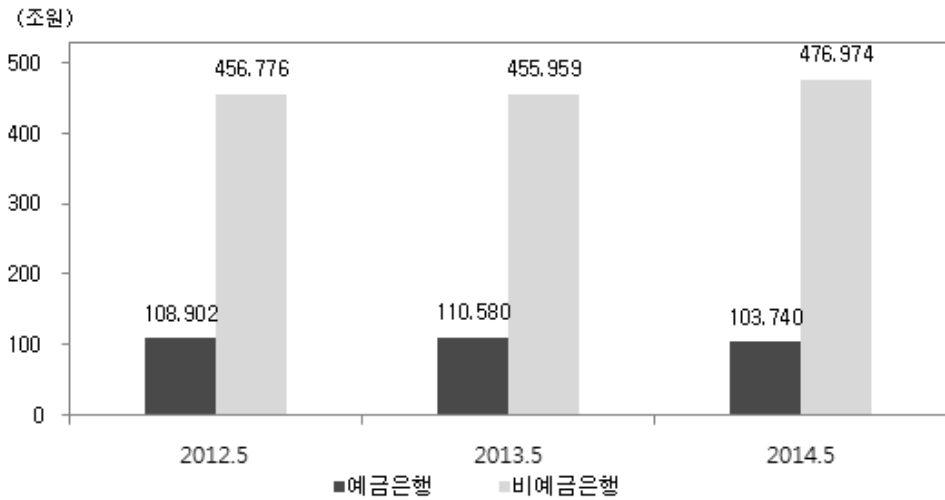
- 5월 기준 전국지역의 전체 대출금 잔액은 전월대비 증가
 - 전체 대출금 잔액(1,559조 2,794억원)은 전월(1,550조 1,610억원)대비 0.6% 증가



주 : 말잔 금액, 대출금은 예금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(한국수출입은행, 종합금융회사, 신탁회사, 상호저축은행, 상호금융, 새마을금고, 신용협동조합)의 총합

자료 : 한국은행

<그림> 서울시 금융기관 대출금 잔액 및 증감률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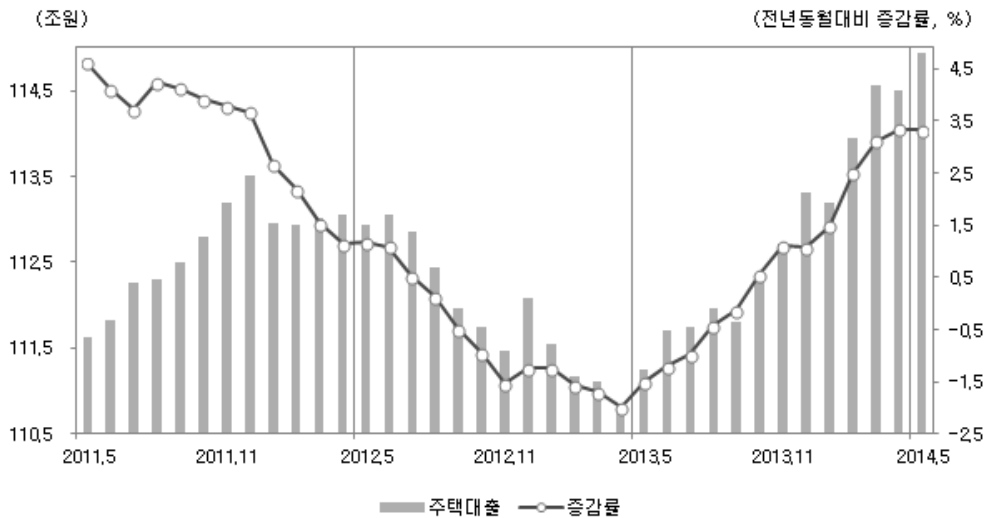


자료 : 한국은행

<그림> 서울시 예금은행과 비예금은행의 대출금 잔액

■ 5월 중 서울의 은행 가계대출은 전월대비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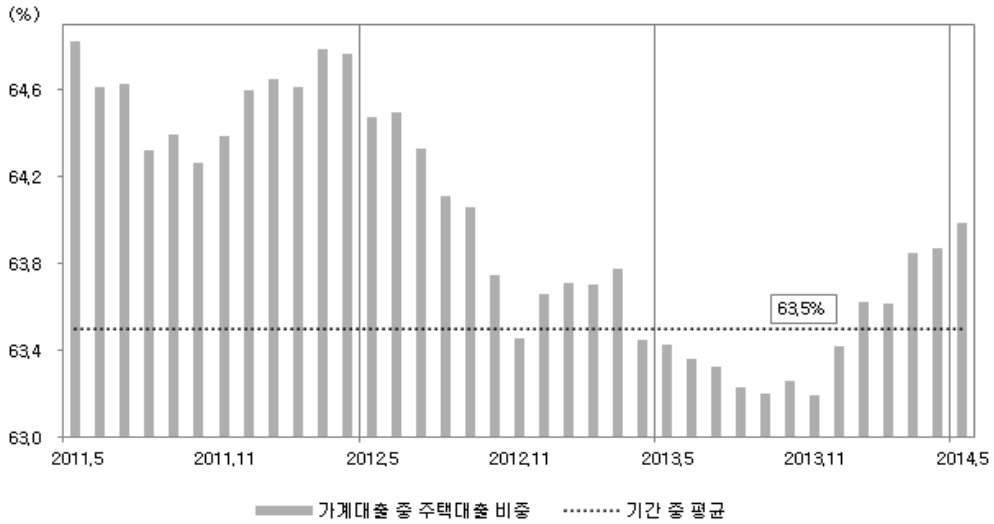
- 은행 가계대출(179조 6,320억원)은 전월(179조 2,657억원)대비 0.2% 증가
- 그 중 주택대출(114조 9,458억원)은 전년동월대비 3.3% 증가



주 : 말잔 금액, 주택대출은 주택담보대출과 주택관련 집단대출 중 주택담보이외의 대출의 총합

자료 : 한국은행

<그림> 서울의 은행 주택대출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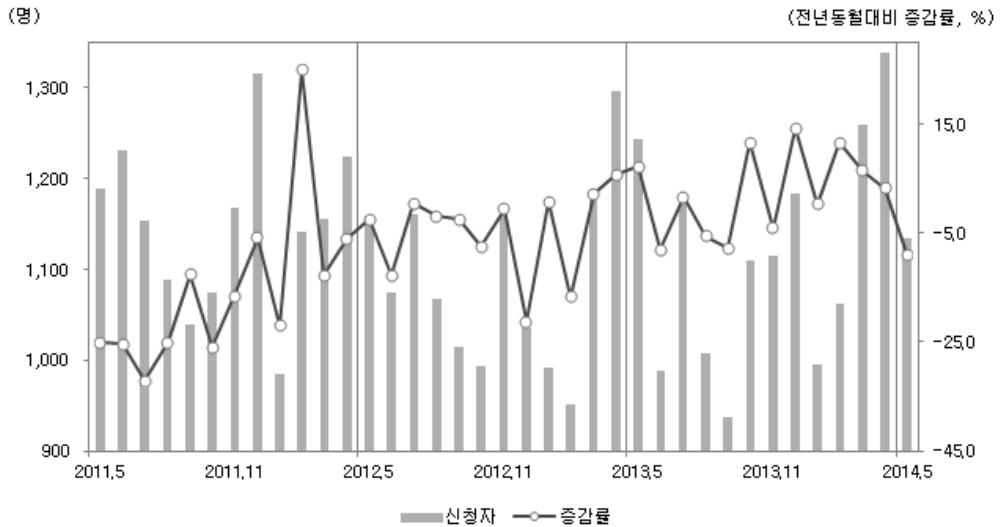


자료 : 한국은행

<그림> 서울의 은행 가계대출 중 주택대출의 비중 추이

■ 5월 중 개인파산 신청자는 전월대비 감소

- 개인파산 신청자(1,134명)은 전월대비 15.2% 감소, 전년동월대비 8.8% 감소
- 개인파산 선고전 기각률(1.0%)은 전년동월대비 43.6%p 감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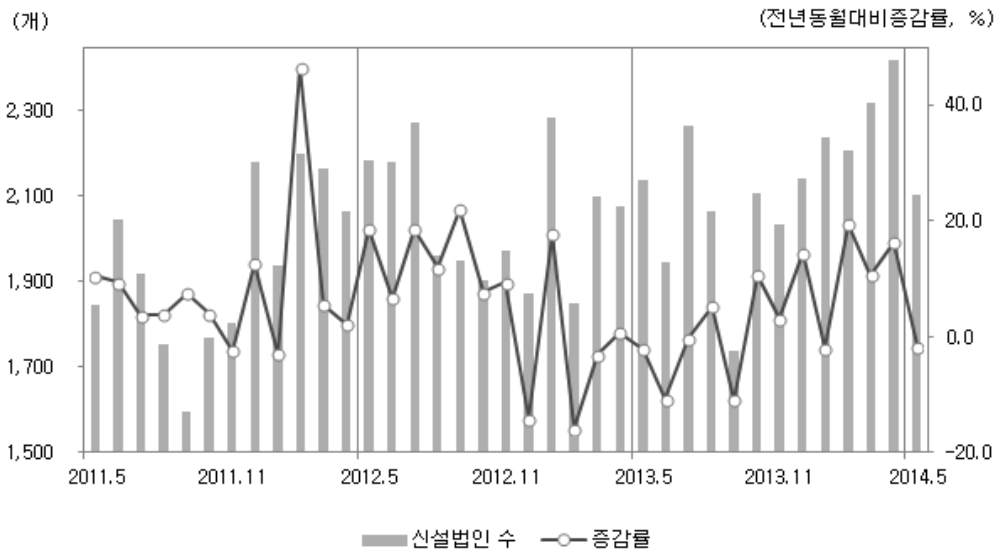


자료 : 대법원

<그림> 서울시 개인파산 신청자 추이

| 신·설·및·부·도·법·인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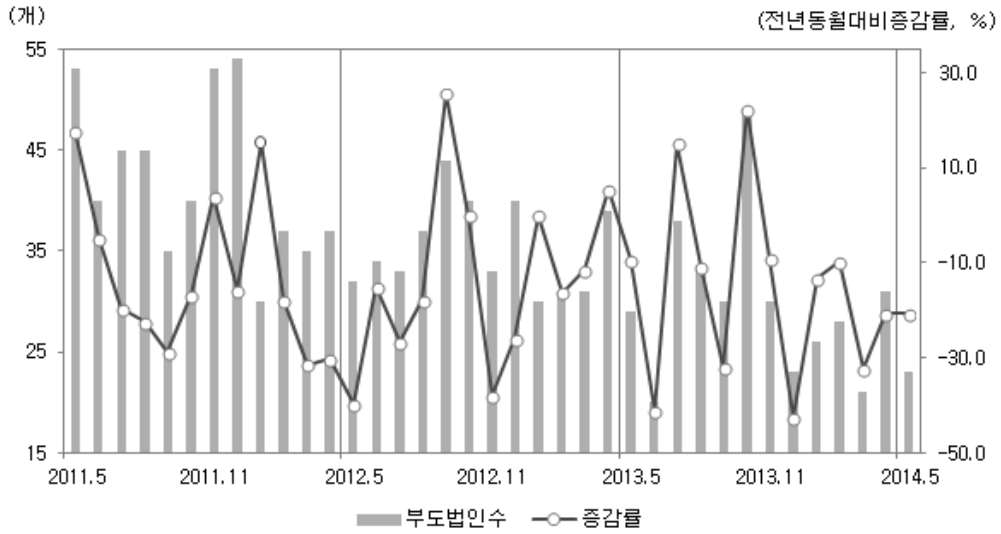
- 서울의 5월 신설법인 수는 전월대비 감소
 - 서울의 신설법인 수는 2,103개로 전월대비 13.0%(315개) 감소, 전년동월대비 1.7%(37개) 감소



자료 : 중소기업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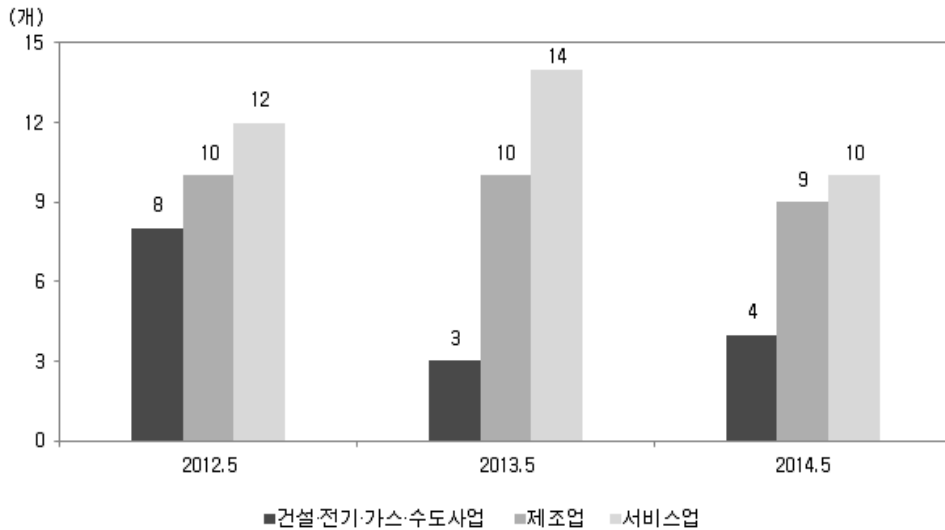
〈그림〉 서울시 신설법인 추이

- 서울의 5월 부도업체 수 건설 및 설비업을 중심으로 전월대비 감소
 - 서울의 부도업체 수는 23개로 전월대비 25.8%(8개) 감소, 전년동월대비 20.7%(6개) 감소
 - 업종별로는 건설 및 설비업이 전월대비 33.3%(1개) 증가,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전월 대비 각각 18.2%(2개), 41.2%(7개) 감소



자료 : 한국은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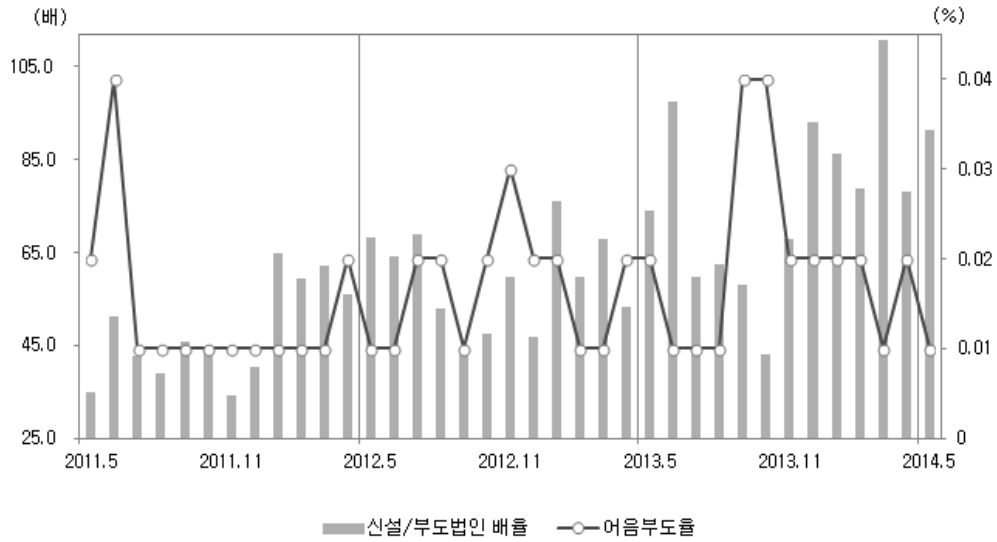
<그림> 서울시 부도법인 추이



자료 : 한국은행

<그림> 서울시 산업별 부도법인 현황

- 5월 중 서울의 부도법인수에 대한 신설법인수의 배율 전월대비 증가
 - 서울의 어음부도율은 0.01% 이고 서울의 신설법인/부도법인 배율은 91.4으로 전월 (78.0배)대비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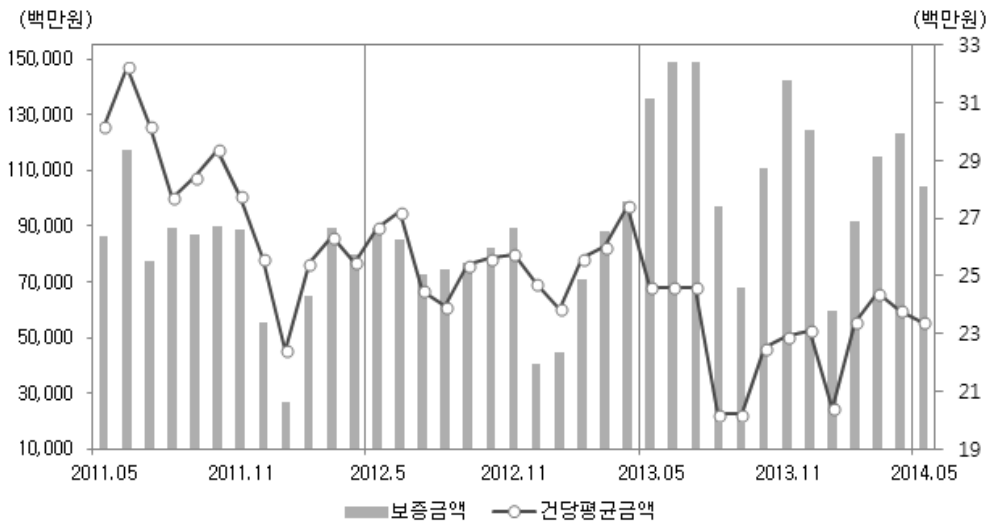


자료 : 중소기업청, 한국은행

<그림> 서울시 어음부도율 및 신설/부도법인 배율 동향

| 신 · 용 · 보 · 증 |

- 서울의 5월 보증지원 건당 평균지원금액은 전월대비 감소
 -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서울시 신용보증공급은 월중 104,220백만원, 4,457건
 - 보증금액과 보증건수는 전월대비 각각 15.6%, 14.0% 감소, 건당 평균지원금액은 전월 대비 1.7% 감소
 - 전년동월대비 보증금액과 보증지원건수는 각각 23.3%, 19.4% 감소하였고, 건당 평균 지원금액은 4.9% 감소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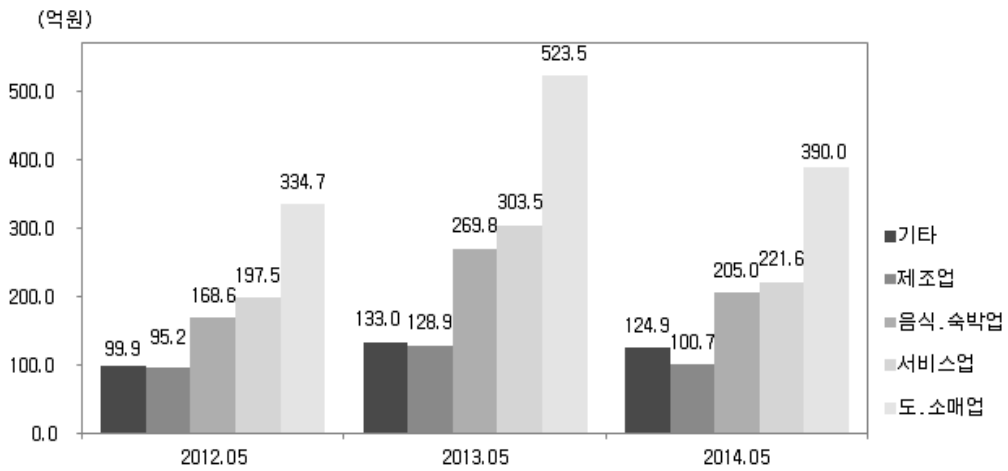
자료 : 서울신용보증재단

<그림> 서울의 보증금액 및 건당 평균 금액 추이

- 서울의 5월 제조업종 보증지원 비중 전월대비 증가
 - 5월 중 제조업종에 대한 보증지원 비중이 공급금액기준 9.7%로 전월(8.0%) 대비 1.7%p 증가한 반면, 도·소매업종에 대한 지원 비중은 37.4%로 전월대비 감소
 - 보증건수 기준 시 제조업종은 7.5%로 전월(6.8%)대비 0.8%p 증가하였으며, 도·소매업종은 35.8%로 전월(34.6%)대비 1.2%p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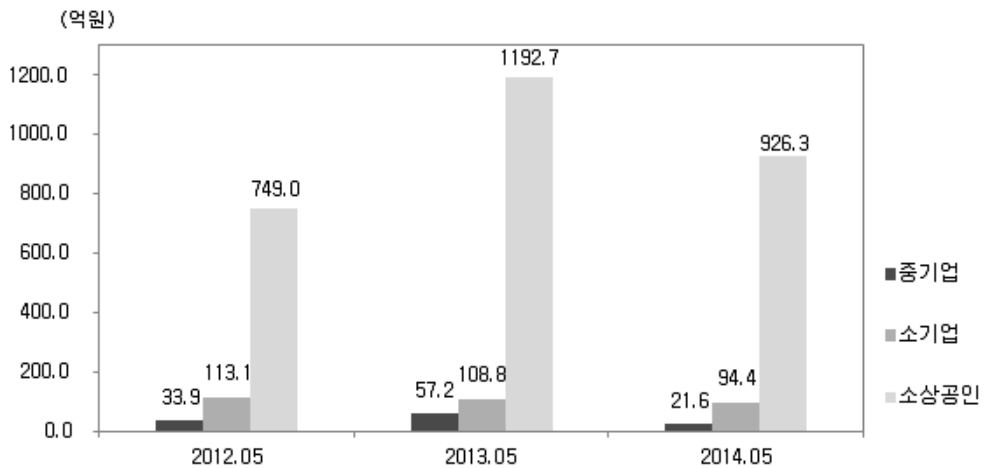
■ 서울의 5월 소상공인 지원금액 비중 전월대비 감소

- 기업규모별 신용보증지원 비중은, 소상공인이 금액기준 88.9%로 전월대비 0.6%p 감소하였고 건수기준 96.3%로 전월대비 0.3%p 증가
- 소기업 지원 비중은 금액기준으로 9.1%로 전월대비 0.5%p 증가하였고 건수기준 3.1%로 전월대비 0.2%p 감소
- 중기업 지원비중은 금액기준으로 2.1%로 전월대비 0.1%p 증가하였고 건수기준으로는 0.5%로 전월대비 0.2%p 감소



자료 : 서울신용보증재단

<그림> 업종별 공급금액 기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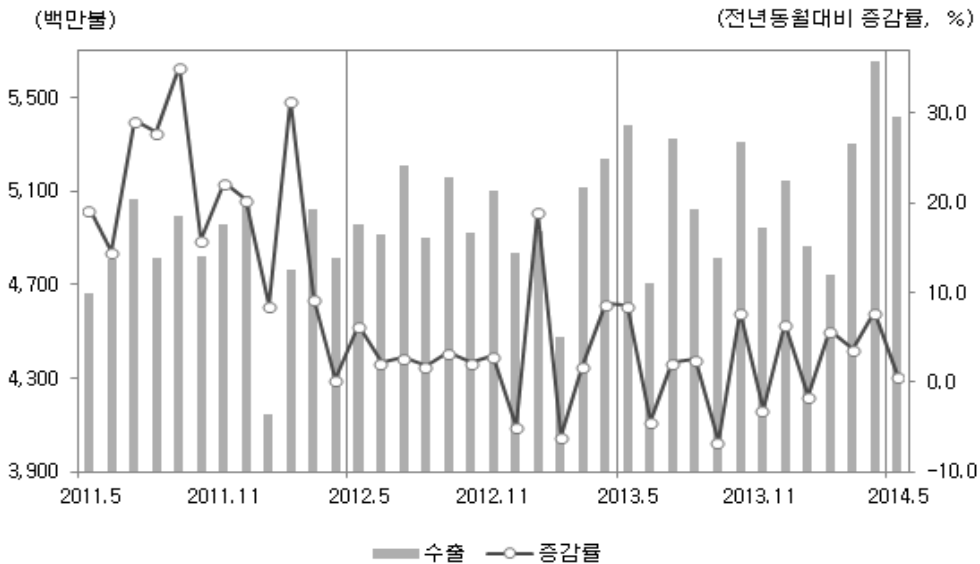
자료 : 서울신용보증재단

<그림> 기업규모별 공급금액 기준

| 수 · 출 · 입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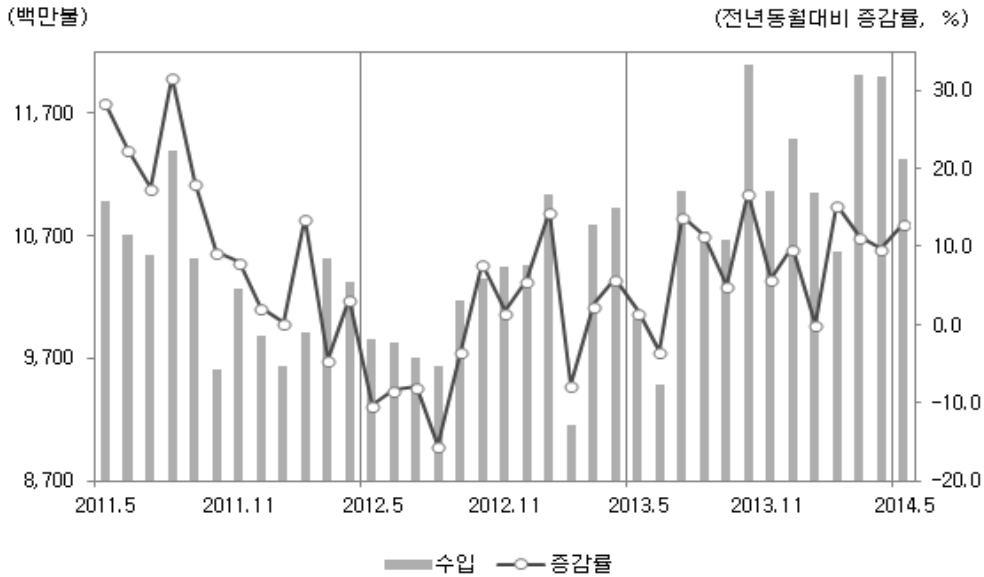
- 서울의 5월 수출, 수입 모두 전년동월대비 증가
 - 서울의 수출은 54.2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동월대비 0.7% 증가하였고 수입은 113.2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동월대비 13.0% 증가
 - 전국의 수출은 476.1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동월대비 1.5% 감소하였고 수입은 425.2억 달러 기록하여 전년동월대비 0.2% 증가

- 서울의 5월 수출 1순위는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, 수입 1순위는 석유제품
 - 서울의 품목별 수출의 경우,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가 573백만 불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고 다음은 자동차부품, 합성수지, 반도체, 편직물 등 순
 - 서울의 품목별 수입의 경우, 석유제품이 1,142백만 불을 기록하였고 다음은 반도체, 자동차, 컴퓨터, 항공기 및 부품 등 순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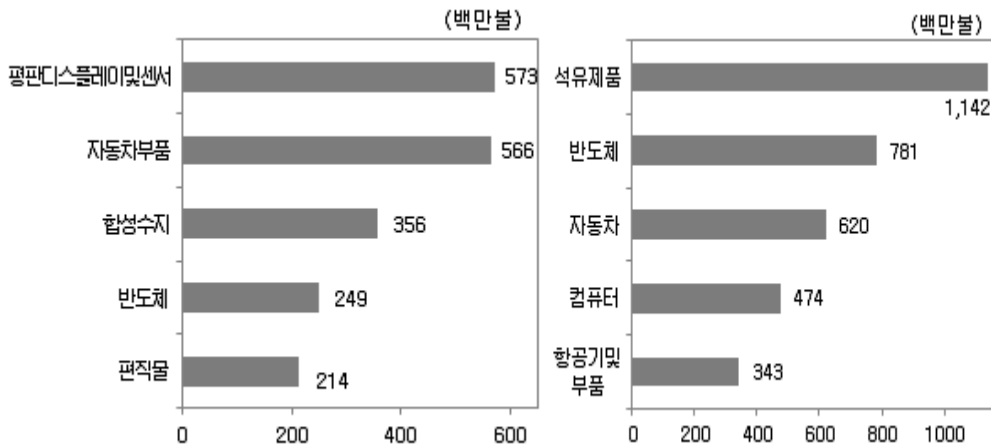
자료 : 무역협회

<그림> 서울시 수출액 및 증감률 추이



자료 : 무역협회

<그림> 서울시 수입액 및 증감률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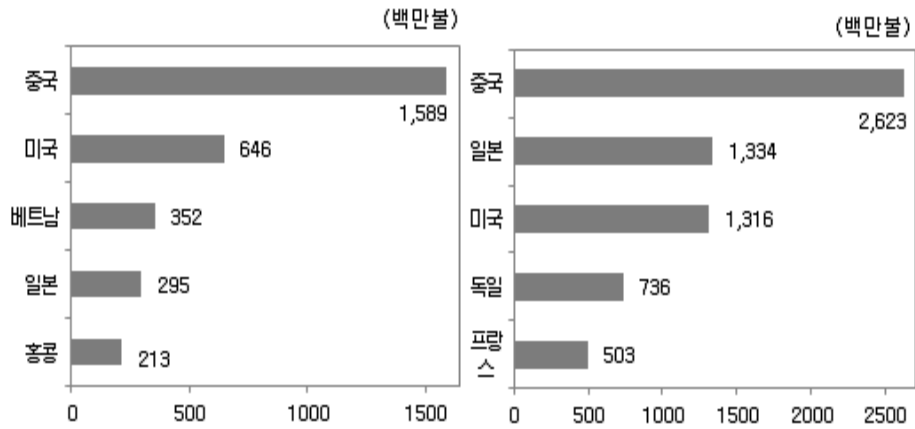
자료 : 무역협회

<그림> 5월 서울시 품목별 수출액

<그림> 5월 서울시 품목별 수입액

■ 서울의 5월 수출입국 1순위는 중국

- 서울의 국가별 수출의 경우, 중국이 전년동월대비 1.3% 증가한 1,589백만불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미국, 베트남, 일본, 홍콩 순
- 서울의 국가별 수입의 경우, 중국이 전년동월대비 17.8% 증가한 2,623백만불을 기록하였고 그 다음으로 일본, 미국, 독일, 프랑스 순



자료 : 무역협회

<그림> 5월 서울시 국가별 수출액

<그림> 5월 서울시 국가별 수입액